

불공평 세상 냉소적으로 사는 법 '고독의 연대'

컬처 & 피플

소설가 은희경



“소설은 쓰는 것도 힘들지만 인정받기는 더 힘들지요. 물론 팔리는 소설을 쓰는 것은 더욱 힘들지요. 그럼에도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고, 글을 읽어준다는 것은 굉장한 성취감을 줍니다. 사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거든요. 특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요.”

작가 은희경(54)은 소설가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다. 20년이 넘는 시간 쉬지 않고 소설을 써왔던 이유일 터였다.

최근에 흥대 부근 북카페에서 작가를 만났다. 일상에 거주한다는 그녀는 인터뷰 당일 다른 방송 스케줄이 잡혀 있었다. 얼마 전 ‘다른 눈송이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단 하나의 눈송이’라는 다소 긴 제목의 작품을 내고 이런 저런 인터뷰가 있는 모양이었다.

한 여름에 ‘눈’이라니, 다소 의아했지만 그러나 창작의 세계에서 계절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법이었다. “여러 의미가 있지만 눈이 현실 공간에서 어떻게 희망과 상실이라는 상반된 기제로 드러나는지를 쓰고자 했어요. 사실 우리 생은 비밀스럽게 연결된 서로 다른 인연으로 만들어지고, 그 운명의 틈바구니에서 나름의 질서를 획득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일본 시인 사이토 마리코의 ‘눈보라’라는 시에서 차용한 제목의 울림은 그리 간단치 않다. 한 겨울 어두운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는 모두 비슷하지만 사실은 저마다 다른 고유한 존재들이라는 의미일터. 우리들 각자의 생도 그렇다는 예기다.

은 작가의 고향이 전북 고창인 터라 말투에 전라도 억양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예상과 달랐다. 오히려 그녀는 기자의 남도 억양에 친근함을 표했다. 고향을 비롯한 남도 이야기로 초면의 서먹함이 눈 녹듯 사라졌다.

소설 쓰는 작가들은 늙지 않아요 늘 깨어있고 긴장의 끈 놓지않기 때문이죠

“소설을 쓰는 작가들은 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정한 틀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고 자유롭게 놀아두기 때문이죠. 인간에 대해 알고자 하는 이들은 세상이라는 틀과 자신이 만든 틀에 얽매어 서는 안 됩니다. 동시대인들과 호흡을 하면서도 현재적 가치, 현재적 시각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운명적으로 작가는 고정화된 인습에 맞서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세계를 구현해야 하는 존재 아니까요.”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는 말에, 돌아온 답이었다. 사실 단발머리, 작은 키, 단아한 외모는 일반적인 소설가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작가의 젊은 이미지는 외적인 면보다 내면에서 연유했다. 그녀는 예술에 대한 열정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탄력적이고 유연했다.

그녀는 195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중편 ‘이중주’로 등단한 이후 줄곧 소설을 써오고 있다. 중견 작가라는 타이틀이 말해주듯 지금까지 12권의 소설을 낼 만큼 숨 가쁘게 달려왔다. ‘새의 선물’ ‘타인에게 말걸기’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아내의 상자’ ‘마이너리그’ ‘비밀과 거짓말’ ‘태연한 인생’... 이들 작품은 출간될 때마다 ‘역시 은희경!’이라는 찬사가 잇따를 만큼 문학성과 대중성을 갖춘 소설로 평가받는다.

문학평론가 신형철(조선대 문학과 교수)은 ‘은희경은 하나의 장르’라고 표현했다. ‘장르’라는 상전은 은희경의 작품이 접하는 지리가 어떠한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냉소적 태도, 냉소적 시선으로 세상을 봤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공평하거나 낙관적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가 제시하는 위로의 방식은 고독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고독의 연대’라는 표현도 쓴 것 같은데, 마치 이런 거죠. 나도 고독하고, 너도 고독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고독의 연대가 싹트는 거예요.”

그녀의 소설에 드리워진 ‘냉소’의 전원은 고독이다. 고독한 인물



을 위로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감정 이입을 통해 소설을 쓰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같은 작품들은 앞선 선배들에 의해 숨겨져 다루어져 왔다. 그녀만이 다룰 수 있는 방식이 필요했고, 이것이 바로 ‘냉소’라는 태도였다.

“작품을 쓰고 나서 고칠 때,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 ‘거리’입니다. 글을 쓰다 보면 특정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작가에게 절실하다고 해서 독자들이 그 사람의 입장이거나 관점을 온전히 수용하기는 힘들거든요.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려는 이유가 그 때문이죠.”

권희철 평론가는 은 작가가 취하는 ‘거리’에 대해 이렇게 평한다. “너무 가까워지면 ‘관계’가 개인을 삼키고, 너무 멀어지면 ‘거리’가 고립을 낳는다. 그 둘 사이의 곡예술을 포착하는 데 은희경보다 뛰어난 작가를 찾는 일은 쉽지 않다.”

아마도 은 작가에게 ‘거리’는 또 다른 의미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대학을 졸업하고 신춘문예에 데뷔하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꽤 길었다. 긴 만큼 그녀는 삶을 관조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나름의 방식을 터득하지 않았나 싶다.

은 작가의 소설이 빛나는 지점은 바로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연유하는 생에 대한 성찰이다. 정확히 독서의 양과 질에 비례하는 이 같은 관점은 그녀의 소설이 하나의 ‘장르’로 인식되는 결과를 낳는다.

“흔히들 소설은 아름답거나 진실은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의 관점에서는 진실은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소설을 잘 쓰기 위해서는 잘 아는 것과 쓰고 싶은 분야를 써야 합니다. 잘 안다는 것은 진실에 근접해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일 테니까요.”

/서울=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데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1번지 자라섬. 말 그대로 자라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곳이다. 10년전까지만 해도 무분별한 모래채취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쓸모없는 땅이었다. 불과 800m 떨어진 남이섬이 드림과 800m 떨어진 남이섬이 드림을 받은 것과 달리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제 자라섬은 전 세계 재즈마니아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음악의 섬’으로 변신했다. 섬을 찾은 관광객들은 반짝이는 별빛 아래서 돛자리를 깔고 따뜻한 담요로 몸을 감싼 채 세계적인 재즈 뮤지

거들하면서 광주의 브랜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월페’는 지역의 여느 축제와 사뭇 다르다. 야외 잔디밭에서 열리다 보니 돛자리와 담요를 챙기는 관객들이 눈에 많이 띈다. 게다가 격식있는 콘서트에선 입장불가인 음식들도 이곳에선 ‘프리패스’(free pass)다.

지난 2012년 ‘빛속의 월페’는 음악애호가들에게는 전설로 남아있다. 전남대에서 열린 축제 첫날, 가만히 서 있기조차 힘든 폭우에도 관객들은 우비를 입은 채 공연을 즐겼다. 이날 양방언 밴드의 아련한 음악은 비보다 더 관객들의 가슴을 축축히 적셔 주었다. 무대에

‘월페’ 열기속으로

(광주 월드뮤직페스티벌)

선들의 연주를 즐긴다. 지난 2004년 10월 첫선을 보인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JJF·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빛어낸 한쪽의 아름다운 풍경이다.

‘재즈’라는 음악장르와 캠퍼문화 접목시킨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은 매년 국내외에서 17만 여명(생산유발효과 255억원)이 다녀가는 아시아 최고의 음악축제다. 지난해까지 누적관객수는 약 140여 만 명. 비록 3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외국 관광객들은 일년전부터 자라섬 페스티벌의 프로그램 일정에 맞춰 비행기를 예약할 정도다.

그렇다고 너무 부러워 할 필요는 없다. 광주에도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의 아성을 위협하는 다코호스가 등장했다. 지난 2010년 문광부가 첫선을 보인 광주 월드뮤직페스티벌(이하 월페)이다.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의 핵심콘텐츠로 기획된 ‘월페’는 아르헨티나의 탱고, 브라질 보사노바 처럼 지역 민속음악과 대중음악을 접목시킨 월드뮤직의 경연장이다. 월드뮤직이라는 낯선 장르이지만 해를

서 내려 오기 전 양방언은 관객들에게 엄지 손가락을 추켜 보이며 답례를 표했다.

2014년 월페가 오는 29~30일이틀간 문화전당에서 막을 올린다.

특히 올해는 10월 준공을 앞둔 문화전당에서 펼쳐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그동안 서구 풍양체육공원을 시작으로 광산구 쌍암공원, 북구 전남대학교, 남구 빛고을 시민문화회관을 전전하며 열린 순회공연을 청산하고 마침내 문화전당에 닿을 내리는 것이다. 매년 장소가 바뀌는 바람에 일관성이 떨어져 아쉬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올해는 ‘월드뮤직의 미래’라 불리는 쿠바 출신 여성 싱어송라이터 마이라 안드레타를 비롯해 화려한 국내외 유명 뮤지션들의 라인업이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한 여름 밤, 탁 트인 잔디밭에서 가족들과 간단한 음식을 나누며 음악을 즐기는 건 놓칠 수 없는 기회다. 축제는 즐기는 자의 몫이라 했던가. 이번 주말에는 ‘월페’의 향연에 꼭 빠져보자. ‘아 유 레디?’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2015 유·스퀘어청년작가 전시 공모

유·스퀘어문화관이 ‘2015년 유·스퀘어청년작가 전시’를 공모한다. 접수 기간은 9월1~30일이다.

대상은 만 40세 이하 시각예술 및 전 분야의 단체전을 포함한 전시 경력이 있는 젊은 신진작가 및 단체, 전시기획자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유·스퀘어

문화관 홈페이지(www.usquareculture.co.kr)에서 신청서와 전시 계획서를 내려 받아 학력, 전시 경력, 포트폴리오(이미지 10점 이상), 추천서 또는 전시서문 등을 첨부해 우편으로 접수하면된다. 결과 발표는 11월 중. 문의 062-360-8436.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착하고 정직한 먹거리를 위해
직접 검증하다!

먹거리 X파일

매주 금요일 밤 11시

MC 김진 채널A기자

CHANEL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채널A

www.ichannelA.com

http://tv.ichannelA.com/culture/xfile
02 2020 3333~4